



교통할머니





1.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주효는 엄마에게 큰 소리로 인사한 후, 따뜻한 녹차와 장갑을 챙겨 들고는 쏘살같이 유치원으로 달려갑니다. 주효네 집에서 유치원까지는 길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두 번씩이나 건너야 합니다. 오늘따라 주효가 아침시간에 이렇게 서두르는데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2. 2년 전, 주효는 아침 등원길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는 차에 치여서 크게 다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효가 사고를 당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문병 온 옆집 아줌마에게서 주효가 다친 그 횡단보도에서 또 다른 한 아이가 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3. 어느덧 시간이 흘러 퇴원을 한 주효는 다시 유치원에 나오게 되었고, 여전히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횡단보도 앞에 초록색 잠바를 입고 호루라기를 목에 건 할머니가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동안 열심히 차들의 진행을 막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아이들은 할머니를 향해 인사를 하거나 손을 흔들며 지나갑니다.
'어.. 어? 도대체 저 할머니는 누구시지?'





나. 주효는 친구 지연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아, 그 교통 할머니? 네가 사고나서 병원에 있는 동안 할머니 손녀가 그 길을 건너다가 그만 차에 치여서 죽었어.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할머니가 죽은 손녀를 생각하시면서 날마다 저렇게 교통 봉사를 하고 계신거야.” 주효는 할머니가 정말로 대단하고 고마우신 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5, 주효는 그날부터 횡단보도를 건널 때면 할머니께 가까이 다가가 먼저 인사를 했고, 그럴 때면 할머니는 늘 다정하게 웃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차 조심하고 건너라. 차 잘 보고.” 그런데 어제 문득 나이도 많으신 할머니가 추운 곳에서 여러 시간 동안 서 계실 걸 생각하니 걱정스러워졌습니다.





b. 그래서 그동안 심부름으로 모은 용돈에서 예쁜 장갑 하나를 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위해 따뜻한 녹차를 좀 끓여달라고 엄마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주효의 이야기를 들은 엄마도 “우리 주효가 정말 기특한 생각을 했구나. 그래, 아마도 우리 주효가 지난 번에 그렇게 무서운 일을 당해서 더더욱 할머니께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된 걸거야. 할머니께 감사의 말씀 꼭 전해드리거라.” 하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7. “할머니, 이게 받으세요.” , “아니, 우리 이쁜 강아지. 이게 다 뭐니?” “할머니 추우실까봐 제가 준비한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고마울 데가 있나.” 하시며 할머니는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희가 날마다 안전하게 유치원을 다니는걸요.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건강하셔서 오래오래 저희를 지켜주세요. 할머니는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 주시는 초록불이시잖아요.” “그래, 고맙구나!” 할머니를 뒤로 하고 유치원을 향해 걷는 주효의 발걸음은 그 어느 날보다 가벼워보입니다.

